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시간 : 30분

점수 : 50점

성명

수험 번호



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인(聖人)은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노닌다. 지식을 재앙의 근원으로 여기고 예의규범을 몸을 얽매는 것으로 생각한다. 세상의 도덕은 교제의 수단이며 기교는 장사의 숨씨일 뿐이라고 여긴다. 성인은 모략을 하지 않으니 어찌하여 지식이 필요하겠는가.

- ① 시비분별을 잊음으로써 타고난 도덕성을 실현해야 한다.
- ② 사물에 대한 지식을 쌓아서 만물의 이치를 관통해야 한다.
- ③ 생로병사가 모두 괴로움임을 깨달아 모든 집착을 버려야 한다.
- ④ 세속적 가치 판단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 ⑤ 성인이 제정한 사회 규범을 익혀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2. (가)의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 마음은 몸을 주재하는 것으로, 그 본체는 성(性)이고 천리(天理)이며 참된 앎(良知)이다. 마음의 본체는 천하의 이치를 포괄하고 있으면서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함이 없다.</p> <p>을 : 마음은 몸을 주재하는 것으로, 그 본체는 성이고 작용은 정(情)이다. 마음은 성과 정을 통괄(統)하고, 그 밝은 덕은 온갖 이치를 갖추고 있으면서 만사에 감응한다.</p>
(나)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 A : 갑만의 입장 B : 갑, 을의 공통 입장 C : 을만의 입장</p>

<보기>

- ㄱ. A — 한 사물에 양지를 실현하면 그 사물이 이(理)를 얻게 된다.
- ㄴ. B —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늘의 이치를 갖추고 있다.
- ㄷ. C — 행동으로 실천되는 앎이어야 참된 앎이라고 할 수 있다.
- ㄹ. C — 타고난 앎을 지극히 하려면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정부에 대한 복종에서 얻는 별도의 이익이 도덕성에 대한 별도의 소감을 산출합니다. 권리와 책임 등의 개념은 오직 정부로부터 거두는 이득에서 유래되며, 이 이득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정부에 저항하는 데 반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이 정부에 대해 저항하는 경우에도 불쾌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복종의 동기는 이익 이외의 어떤 원리도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 ①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정치적 의무를 발생시킨다.
- ② 정치적 의무의 근거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있다.
- ③ 정치적 의무는 개인의 명시적 동의에 의해서만 생긴다.
- ④ 정부에 대한 복종은 아무 조건 없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다.
- ⑤ 정부의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개인의 권리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육체적인 욕망은 충족시키지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육체적인 욕망은 완강하게 거부함으로써 자연에 복종해야 한다.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이다. 우리는 자연적 본성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보기>

- ㄱ. 모든 욕구로부터 해방되어야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
- ㄴ. 진정한 쾌락은 결핍이나 과잉으로 인한 고통이 없는 것이다.
- ㄷ. 죽음은 몸과 마음에 해를 끼치므로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 ㄹ. 참된 쾌락을 위해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최소한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 점수문에 속하는 열등한 수행이더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는 필요하다. 망상이 들끓으면 우선 정(定)으로 그 마음을 다스려 본래의 고요함으로 되돌리고, 혜(慧)로 명한 상태를 다스리면 결국 대자유인이 될 것이다.

을 : 관(觀)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고, 경(經)도 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교관에 지극히 마음을 다하는 것은 이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니, 화엄을 전수하더라도 관문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

- ① 갑 : 선(禪) 수행의 한 부분으로 교(敎)를 받아들여야 한다.
- ② 갑 : 경전에 대한 탐구가 불성(佛性)의 깨침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 ③ 을 : 경전 읽기와 참선을 함께 수행하여 진리를 깨쳐야 한다.
- ④ 을 : 내적, 외적 공부를 모두 하여 교와 선을 조화시켜야 한다.
- ⑤ 갑, 을 : 종파가 다를지라도 부처의 가르침은 통한다.

【6~7】 갑, 을은 한국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 인성(人性)은 이(理)와 기(氣)가 합해진 것이다. 이가 기 속에 있는 것을 기질지성(氣質之性), 기질 속의 이만을 홀로 가리켜 말한 것을 본연지성(本然之性)이라 한다.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하나의 성이지만, 주(主)로 말한 것이 달라 두 개의 이름이 있을 뿐이다.

을 : 인성은 도의(道義)와 기질(氣質)이 합해진 것이다. 식욕을 추구하는 성향을 기질지성이라 하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성향을 도의지성이라 한다. 사람과 동물의 본성을 똑같이 기질지성이라고 하면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똑같이 도의지성이라고 하면 동물을 높이는 것이다.

6.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갑은 본연의 성이 기질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수양해야 한다고 본다.
- ㄴ. 을은 사람과 동물 모두 도덕적 행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 ㄷ. 갑은 을과 달리 사람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선천적인 마음이 있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사람과 동물의 성(性)에도 공통점이 있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옳은 것은? [3점]

마음은 이와 기가 합해진 것이다.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탄 것[乘]이니 선하지 않음이 없다. 하지만 기가 발함에 적절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이(理)를 멸(滅)하면 나아가 악이 된다. 사단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는 것[隨]이니 순선하여 악이 없다. 그러나 이가 발함에 끝까지 드러나지 못하고 기에 가려지면 흘러서 악이 된다.

- ①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같지 않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선한 본성의 발현처럼 이도 생동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이와 기는 일물(一物)이 될 수밖에 없음을 경시하고 있다.
- ④ 사단은 칠정 중의 선한 감정일 뿐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 ⑤ 사단은 선의 근거인 이가 능동적으로 발한 것임을 긍정하고 있다.

8.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혼은 앓을 사랑하는 이성적인 부분, 승리를 사랑하는 기개적인 부분, 돈을 사랑하는 욕구적인 부분으로 나뉜다. 각 부분의 탁월한 상태가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이다. 지혜는 이성과 관련된 덕이고, 기개와 관련된 덕은 용기, 욕구와 관련된 덕은 절제이다.

- ① 덕을 갖추는 것과 행복한 삶은 별개의 문제이다.
- ② 행복의 궁극적 근원은 경험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 ③ 절제는 영혼의 욕구적인 부분에게만 요구되는 덕이다.
- ④ 지혜는 영혼 전체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아는 것이다.
- ⑤ 욕구를 완전히 제거할 때 영혼은 정의의 덕을 갖춘 상태가 된다.

9.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 천하에 도(道)가 있으면 치달리는 말을 거둬들여 농사에 쓰며, 천하에 도가 없으면 싸움터의 말이 되어 성 밖에서 살게 된다. 죄는 하려하는 것[欲]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화(禍)는 만족을 모르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며, 허물은 얻으려 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을 :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라는 보존되고, 도가 없으면 나라는 위태롭게 된다. 현명한 임금의 군자를 등용하여 법도를 밝힌다. 도는 임금이 밟아야 할 길이고, 군자는 예의를 다스리는 자이다. 사람의 본성[性]은 교화를 거친 후에 선에 부합된다.

<보기>

- ㄱ. 하늘은 인간에게 도덕적 성정을 부여하는 실체인가?
- ㄴ. 도(道)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수양이 필요한가?
- ㄷ. 본성을 보존하여 인의의 덕을 실현하는 것이 공부의 목표인가?
- ㄹ. 인간의 본성[性]은 같지만 인위적 노력에 따라 다르게 발현될 수 있는가?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0. (가)를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인간은 문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에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 능동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한다. 정적인 성과와 결과보다는 성장, 개선, 진보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 된다.

(나)

					(A)		
	(B)						

[가로 열쇠]
 (A) : 앓과 행함. 왕수인은 ○○합일을 주장하였다.
 (B) :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요소인 오온(五蘊). 색수상행○

[세로 열쇠]
 (A) : …… 개념

- ① 그 자체로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다.
- ② 절대적 진리를 깨닫기 위한 도구이다.
- ③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 ④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최초의 원인이다.
- ⑤ 무제한적으로 선한 도덕적 행위의 근거이다.

11. 그림의 가상 편지를 쓴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선생님께
선생님은 지난 편지에서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나중에야 비로소 그는 무엇이 될 수 있고, 그 스스로 되고자 하는 존재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략)…

- ① 인간은 먼저 실존한 후에 스스로를 형성해 가는 존재이다.
- ②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실현해야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 ③ 인간은 신에 의해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 ④ 인간이 참된 실존에 이르기 위해서는 종교적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 ⑤ 인간은 신에 의지하지 않고 자유 자체를 선택하는 주체적인 존재이다.

12. 다음은 고대 서양 사상가의 주장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이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덕에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이라는 두 종류가 있다. 지성적 덕은 대체로 교육에 의해 생기고 성장하며, 많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에 비해 품성적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긴다. 절제 있는 행위를 해 봄으로써 절제 있게 되며, 용감한 행위를 해 봄으로써 용감하게 되는 것이다. 품성적 덕은 ㉢중용을 택하여 행동하는 성품이다. 그것은 두 가지 악덕, 즉 지나침으로 말미암은 악덕과 모자람으로 말미암은 악덕 사이의 중간이다.

<보기>

- ㉠. ㉠을 통해 초월적인 선의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다.
- ㉡. ㉡의 하나인 실천적 지혜는 중용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
- ㉢. ㉢은 인간의 모든 감정과 행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 ㉣. ㉣은 산술적 중간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상태라 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13. 다음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도덕의 원리와 행복의 원리를 구분하는 것이 이들 둘 사이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한 실천 이성인 우리가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할 것을 의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의욕하는 바는 오직 의무가 문제시될 때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기>

- ㉠. 언제나 개인적인 준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가?
- ㉡. 의무와 행복이 상충할 때 의무를 선택해야 하는가?
- ㉢.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인가?
- ㉣. 도덕적 행위의 판단 근거를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에서 찾아야 하는가?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14.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 자연 안에는 어떤 것도 우연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결정되어 있다. 최고의 행복이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의 만족이다.

을 : 인식 능력이 없는 자연적 사물들은 어떤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그런데 그 사물들은 인식 능력이 있는 어떤 존재에 의해 지휘되지 않는다면 목적을 지향할 수 없다. 모든 자연적 사물들이 목적을 지향하게 해 주는 어떤 지성적 존재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존재를 신이라고 부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5. (가)의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우리는 최소 국가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논했으며, 그보다 포괄적인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논했다.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관에 따르면, 취득과 양도의 원리들은 그러한 포괄적인 국가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가) 을 : 나는 분배적 정의론에는 문화적 다양성과 정치적 선택을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본다. 정의의 원칙들은 그 자체가 다원적이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나)

<보기>

- ㉠. A — 돈과 상품은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교환될 수 있는가?
- ㉡. A — 가장 불리한 계층에게 재분배하기 위한 국가의 과세가 필요한가?
- ㉢. B — 개인의 소유 권리를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로 보아야 하는가?
- ㉣. C — 모든 사회에서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치만을 추구해야 하는가?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16.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협동적 부의 원천들이 풍요롭게 넘쳐흐를 것이며, 부르주아 법칙의 협소한 지평선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회는 그 깃발 위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문구를 아로새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전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왜곡시켜 버렸다. 사회주의는 국민들로 하여금 피동적인 역할에 머물게 하지 않으며, 국민들의 철저하고도 적극적인 참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사회주의는 최고의 형태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이다.

- ① (가) : 공산 사회에서는 사유 재산과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가) : 모든 계급 간의 연대를 통해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 ③ (나) : 완전 고용과 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경제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 ④ (나) : 생산 수단의 공유를 기본으로 부분적인 사적 소유도 인정해야 한다.
- ⑤ (가), (나) :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7. 고대 동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정치란 바로잡는[正] 것이다. 군주가 바르게 통솔한다면 누가 따르지 않겠는가. 군자의 덕이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아 풀 위로 바람이 불면 풀은 저절로 쓰러지는 것과 같다.
 을 : 정치란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을 가지고, 다스림을 펼치는 것이다. 이를 시행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손바닥 위에서 물건을 움직이듯 쉬울 것이다.

- ① 갑은 법률을 통해야만 인정(仁政)을 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갑은 백성을 무욕(無欲)하게 해야 선한 본성을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③ 을은 백성의 항산(恒産)이 보장되지 않으면 왕도(王道)는 실현될 수 없다고 본다.
- ④ 갑은 을과 달리 무력으로 다스리는 통치자를 바꿀 수 있음을 강조한다.
- ⑤ 갑, 을은 외적 규범으로 통치하여 백성의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18.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부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과 국내의 고용을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투자 계획을 통해 유호 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실업이나 불황 등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면 자유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됩니다. 정부는 축소되어야 하며 가급적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 ① 갑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시장 실패를 초래한다고 본다.
- ② 갑은 유호 수요 창출을 위해 복지를 감축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경제의 효율성을 위해 큰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은 을과 달리 사유 재산제를 폐지해야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

19.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문제] 근대 한국 사상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가) 선천(先天)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三界)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 재앙과 환란이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다.

(나)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그 마음을 지키고[守心]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며[正氣], 그 본성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받아라. 서양의 학(學)에는 한울님[天主]의 가르침이 없고, 서양의 도(道)는 허무에 가깝다.

[학생 답안]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가)는 ㉠고유 사상에 무속과 도가 사상을 수용하여 사상적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인류가 겪는 모든 재난의 원인인 원한을 풀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는 ㉢모든 사람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음을 깨달고 한울님의 마음을 지키기에 힘써야 한다고 보았으며, ㉣남녀와 신분 차별을 반대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가), (나)는 모두 ㉤내세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현세에서 선행을 쌓을 것을 강조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0.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 사람의 품성과 행위에서 발생하는 쾌락 또는 고통의 모든 감정이 우리가 칭찬하거나 비난하게 되는 특별한 종류의 감정은 아니다. 어떤 품성을 도덕적으로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느낌이나 감정을 일으키는 경우는 오직 그 품성을 우리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고려할 때뿐이다.

을 : 한 행위가 가져다 주는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을 계산해 보라. 이 둘을 비교하여 차감했을 때 쾌락 쪽이 남는다면 그 행위는 관려자 전체 또는 개인들이 모인 사회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좋은 성향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고통 쪽이 남는다면 일반적으로 나쁜 성향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갑 : 공감의 능력은 도덕성의 기초이다.
- ② 갑 : 이성만 감정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도구적 능력이다.
- ③ 을 : 정상적인 인간은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원한다.
- ④ 을 : 개개인의 행복이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된다.
- ⑤ 갑, 을 : 선악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준으로 유용성을 중시해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